

# OPP vs NPP

송영목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 목차

들어가면서 | 82

1. NPP 출현에 미친 사상적 분위기와 선구자들 | 83

1.1. 사상적 분위기 | 83

1.2. 학자들 | 84

2. 20-21세기 영국의 NPP 삼두 마차 | 87

2.1. Edward Parish Sanders(b. 1937) | 87

2.2. James D.G. Dunn(b. 1939) |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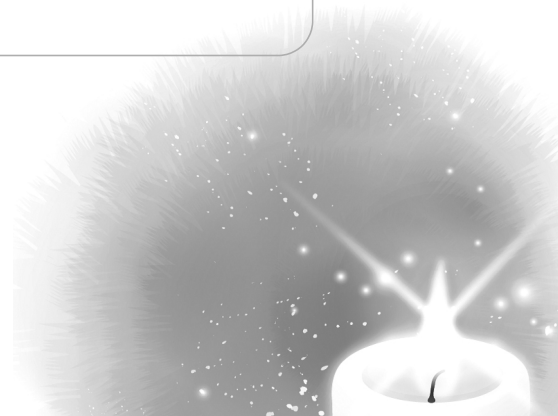
2.3. Nicholas Thomas Wright(b. 1948) | 93

3. NPP의 기여 및 문제점 | 100

3.1. 기여 | 100

3.2. OPP가 본 NPP의 문제점 | 101

나오면서 | 110



## Abstract

### OPP vs NPP

Song, Youngmog (Kosin University)

Although there is no detailed consensus among NPP proponents, their influences are increasing among laymen, ministers and scholars. This paper aims at introducing, evaluating and criticizing the New Perspective on Paul (NPP), which has been a stumbling block in evangelical and Reformed circles since the 1970's. In order to reach this aim, this paper tracks the following steps: (1) describe ideological influences behind the emergence of NPP and on its forerunners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2) study the core arguments of the major NPP proponents, and (3) evaluate the NPP's contribution and its problem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NPP is its dependence on the historical criticism as well as on critical realism. OPP opposes the argument of NPP for a final justification, which can be lost unless believers obey God's commandments. However,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supported by the Old Perspective on Paul (OPP) but rejected by N.T. Wright is still relevant to understanding Paul and for believers. What defines Judaism in the first century

is not ‘covenantal nomism’, a term coined by E.P. Sanders, but ‘variegated nomism’, a term coined by D.A. Carson and M. Seifrid. Contrary to the NPP that believes ‘the works of the law’ in Romans and Galatians are confined to external Jewish identity markers, OPP teaches they mean all human efforts to achieve God’s salvation without the salvific grace of Christ and the recreational power of the Holy Spirit. For a long time, NPP has hindered sound exegesis that is required by grammatical, historical, biblical theological interpretation.

Key words | OPP, NPP, Sanders, Dunn, Wright,  
justification by faith, the works of the law

## 들어가면서

바울 서신을 진지하게 연구하고자 하는 이라면 바울의 새 관점(the New Perspective on Paul; 이하 NPP)은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354-430)을 계승한 교회개혁의 옛 관점(이하 OPP)을 견지한 후손에게 1세기 유대교가 율법주의적(legalistic) 행위-구원 종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NPP는 위협 요소이자 극복 대상이다. 하지만 복음주의권 학자와 교회에서 NPP에 호감을 가지는 이들이 점점증하고 있다. 교회개혁의 주요 모토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sup>1)</sup> 급진적으로 흔들어버린 NPP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자칫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가톨릭으로 회귀할 수 있다. 따라서 복음/개혁주의 진영의 신약학자들은 물론 교의학자들, 그리고 교단(예. OPC)은 NPP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 글은 약 40년 전부터 본격화한 NPP의 출현 배경, NPP 주요 주장자들의 견해, 그리고 NPP에 대한 OPP의 비평 순서로 전개된다.

---

1) 참고. G.L. Bray (ed.), *Galatians, Ephesian* (Reformation Commentary on Scripture; Leicester: IVP, 2011), 71-72.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공로,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우리의 행위가 최후 심판 때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함에 대해서는 개혁교회의 신조들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0-63, 벨직신앙 고백 22, 돌트신경의 ‘하나님의 초자연적 단독 사역으로서의 중생’ 그리고 J.R. Beeke (ed.), *The Reformation Heritage KJV Study Bible* (Grand Rapids: RHB, 2014), 1619를 참고하라. 그리고 1세기 유대교와 16세기 가톨릭의 행위 율법주의를 비판한 칼빈의 롬 10:3-4 주석, 『기독교강요』 3.14.1-17; 3.15.1-7도 참고하라.

## 1. NPP 출현에 미친 사상적 분위기와 선구자들<sup>2)</sup>

그 어떤 사상도 진공 상태에서 출현하는 법이 없다. NPP도 나름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기 까지 통시적인 발전 단계를 거쳤다.

### 1.1. 사상적 분위기

20세기 이래로 에큐메니칼 분위기에 의하면, 반유대주의(anti-Judaism, anti-Semitism) 색채를 지닌 기독교와 유대교의 화해를 위해서 유대교를 비판한 바울을 재해석해야 한다.<sup>3)</sup> 그리고 개신교와 가톨릭의 화해를 위해서 바울에 근거하여 가톨릭을 비판한 루터의 교회개혁을 재해석해야 한다.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반성이 싹튼 1940년대 중반 이후로 독일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책이 출판되었다.<sup>4)</sup> 개신교의 기존의 바울 해석은 ‘홀로코스트 해석’이었다는 반성이 일어났고, 포스트-홀로코스트 신학이라는 친유대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참고로 유대인이 선민으로 거국적으로 회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한국의 ‘세대주의 전천년설’ 및 ‘한·이성경

2) NPP의 출현 배경을 위해서는 가이 프랜시스 워터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기원, 역사, 비판』(서울: CLC, 2012), 21-71; F.D. Farnell, “The New Perspective on Paul: Its Basic Tenets, History, and Presuppositions”, *TMSJ* 16(2005, 2), 232-43을 참고하라. 이 글의 1.2는 R.S. Smith, “Justification i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8(1999, 1), 16-30을 의존한 2014년 11월 24일 합신대에서 열린 조병수교수의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했다.

3) 반유대주의의 뿌리와 형성 역사는 로즈메리 루터, 『신앙과 형제 살인: 반유대주의의 신학적 뿌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를 참고하라.

4) 참고. 제임스 D.G. 던, 『바울신학』(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468. 참고로 반유대교적 해석을 지양하려는 분위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사건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하나의 주요 주제로 이해하는 AD 66년의 이른 연대 대신에 AD 96년으로 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5)</sup> 덧붙여 NPP 주창자들 중에 유대인 출신의 비율을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 1.2. 학자들

유대인 학자 G.F. Moore(1851-1931)는 1920년대 하버드대에서 교수할 당시 1세기 유대교는 율법(legalism)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였다고 주장했다(비슷한 주장자로 유대인 학자 C.G. Montefiore[1858-1938]). 그 당시 신약 연구는 종교사학과 분위기 속에서 유대교가 아니라 헬레니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무어의 주장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1800년대 말-1900년대 초중반의 종교사학과는 성경의 계시적 측면을 제거하고 고대의 종교 문서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신약을 유대교가 아니라 헬레니즘 배경에서 규명했다. 헬레니즘에서 의는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법정적 개념이지만(참고 롬 2장의 법정적 분위기와 옛 관점[이하 OPP]의 개념), 유대교에서 의는(NPP가 주로 주장하듯이) 관계의 회복이다.<sup>6)</sup>

W.D. Davies(1911-2001)는 실현된 종말론을 가르친 웨일즈 출신 C.H. Dodd(1884-1973)의 제자다. 그는 영국인으로부터 억압을 받은 웨일즈 출신이었으므로 20세기에 약자였던 유대인을 동정했다. 데이비스는 1950년부터 듀크대 교수로, 1955년부터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1960년대 뉴욕 유니온신학교에서 샌더스의 박사 학위 논문(‘복음서 전승의 경향’)을 지도한 스승이자 장인으로서 원래 복음서 전공자였던 샌더스와 복음서에

5) 구약 이스라엘을 예수님과 신약 교회가 대체했음에 동의하지 않는 이 연구소는 롬 11:25과 사 43:5-7과 겔 36:24를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해석한다. 그들은 성지 팔레스틴을 방문하고, 디아스포라가 팔레스틴으로 귀국하는 것을 돕고, 유월절 예배와 초막절 행사를 시행한다. 참고. [www.kibi.or.kr](http://www.kibi.or.kr).

6) 라이트는 바울에게 있어 의/공의는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주장한다. 『톰 라이트의 바울』(서울: 조이선교회, 2012), 61, 216.

대한 연구를 함께 했다. 데이비스도 1세기 유대교는 은혜 종교라고 간주했다.

Krister Stendahl(1921-2008)은 스웨덴 출신으로서 1954년에 옘살라대에서 ‘마태공동체와 구약 사용’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4-84년까지 하버드대에서 가르친 스텐달은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Minneapolis: Fortress, 1976)이라는 책에서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실제적인 회심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sup>7)</sup> 스텐달에 의하면, 바울과 유대교는 연속성이 있었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은 인식했으나 죄의식은 없었다. 그리고 바울은 용서와 구원으로서의 칭의를 강조하지 않고, 바울에게 칭의는 이방인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안이지,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었다. 그리고 죄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바울은 ‘행복한 유대인’이었으며, 로마서 1-8장의 서론을 지나, 9-11장의 중심 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데, 이 두 그룹의 교회론적 일치를 위해서 고안한 것이 칭의다.<sup>8)</sup> 스텐달은 루터가 어거스틴의 신학(양심의 문제)을 계승하고, 가톨릭과 투쟁(신앙)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울 서신의 칭의를 오해한 것을 비판했다. 스텐달은 루터가 가톨릭과 싸우면서 가톨릭의 오류를 1세기 유대교의 오류라고 간주했다고 보는데, 중세의 관점을 1세기에 주입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는 바울 서신을 새롭게 해석하면 바울이 죄 의식이 아니라 건장한 (robust) 양심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전 4:4; 빌 3).<sup>9)</sup>

7) 캐나다 임마누엘대학의 T.L. Donaldson은 1세기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로 보면서 율법의 행위들을 유대인의 신분 표지로 해석하지만, 다메섹 사건을 바울의 ‘소명’으로만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Paul and the Gentil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250. 다메섹 사건을 바울의 회심, 소명, 그리고 신학의 재구성 사건으로 보는 최근 연구는 조갑진, “바울의 다메섹 사건에 관한 연구”, 『신약논단』 22(2015, 1), 161을 보라.

8) 유사한 해석은 N.T.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5), 88.

9) K. Stendahl, “The Apostle Paul and the Introspective Conscience of the West”, HTR 56(1963), 199-215. 하지만 롬 7-9장의 ‘나’ 바울은 회심 이후에도 죄 의식으로 변해했다. J.R. Becke (ed.), *The Reformation Heritage KJV Study Bible*, 1626.

이러한 스텐달의 주장으로부터 그 후 등장할 NPP가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sup>10)</sup> 그리고 스텐달이 시대착오적 해석에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NPP는 1세기 바울 서신에다 탈무드와 같은 수 세기 이후 유대 문헌을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비교 대상으로 삼고 말았다.

1952년 노벨상 수상자인 A. Schweitzer(1875-1965)는 1899년 스트라스부르크대에서 ‘소르본에서의 칸트의 종교 철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슈바이처는 신약을 유대 묵시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세상 종말이 속히 올 것이라는 묵시종말론이 예수님과 바울을 지배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유대묵시사상에서 출현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종말이 속히 임할 것으로 믿었다(참고. 마 24:34). 이런 유대적 해석(특히 관계회복으로서 칭의 개념)이 NPP에 영향을 주었다. 슈바이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신비로운 구원교리 (그리고 이방인을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가 큰 분화구라면, 이신칭의는 큰 분화구에 기생하는 작은 분화구로서 바울이 고안한 것이라고 보았다(참고. 브라우슬라우대학 교수인 W. Wrede[1859-1906]도 바울의 칭의는 이방 선교 맥락에서 고안된 2차적인 주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함). 슈바이처는 ‘그리스도 안에’를 유대교의 신비적 의미로 이해했는데, NPP는 ‘신비적 참여’(연합; 참고. 라이트가 선호하는 incorporation)로 표현한다.<sup>11)</sup>

Ernst Käsemann(1906-1998)의 스승인 마르부르크대 볼트만(1884-1977)은 실존주의자답게 개인 구원을 강조했다기에 루터교 전통에 머물렀다. 볼트만은 바울이 행위구원 종교인 유대교를 비판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제만은 칭의

10) 스텐달과 같은 맥락에서 E.P. Sanders는 빌 3:1-9에서 바울이 비판한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자기 의라는 죄악된 태도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1977), 44.

11) 참고.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596, 609.



를 집단적 차원으로 인정했다(참고 NPP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론적/교회론적 칭의 이해). 루터교회 소속 신학자인 케제만은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이해하는데(참고. 튀빙엔대의 피터 쉬틀마허의 하나님의 의 개념과 유사함), 마인츠대, 괴팅엔대, 튀빙엔대에서 교수했다. 이처럼 독일 루터파 안에서 루터를 재해석하는 현상이 다양하고 심화된다.<sup>12)</sup>

## 2. 20-21세기 영국의 NPP 삼두 마차

NPP는 세부 사항에 까지 하나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NPP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포하는 기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회개혁 전통은 1세기 유대교를 행위-율법종교라고 오해했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낸다. 즉 NPP는 루터가 바울이 원래 의도한 바를 오해했거나, 바울이 그 당시 유대교를 잘못 이해했다고 본다.

### 2.1. Edward Parish Sanders(b. 1937)

캐나다 맥매스터대학교의 S. Westerholm에 의해 20세기 후반 바울 신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은 샌더스는 영국이 아니라 텍사스에서 출생했고, 뉴욕 유니온신학교에서 W.D. Davies의 지도로 *The Tendencies*

12) F.C. Baur(1792-1860)를 필두로 한 튀빙엔학과도 1세기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갈등 이론을 발전시켰기에 NPP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참고. 가이 워터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기원, 역사, 비판』, 27. 그 외에도 H.-J. Schoeps(1959), G. Howard(1970), J.B. Tyson(1973), N.A. Dahl(1977), H.S. Sandmel(1979), H. Räisänen(1983), H. Maccoby(1991)도 NPP의 선구자들이다.

*of the Synoptic Tradition*이라는 주제로 1966년에 Th.D를 취득했다. 샌더스는 캐나다 맥매스터대(1966-84), 옥스퍼드대(1984-90; 1990년에 옥스퍼드대에서 D.Litt 취득), 듀크대(1990-2005) 교수를 역임했으며 헬싱키대학교에서 Th.D학위도 수여했다.

헬싱키대학교의 H. Räisänen은 바울이 유대교의 구원론을 행위 구원이라고 곡해했다고 보는데, 그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극찬을 한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에서 샌더스는 크게 세 부류의 유대 문헌 곧 랍비문헌, 탄나임 문헌, 사해사본을 살폈다. 샌더스는 AD 70년 이전 유대교의 공통된 패턴의 핵심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구원 안으로 들어가고(getting in), 언약/구원 안에 머물기(staying in)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sup>13)</sup> 샌더스는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라는 말을 고안했는데,<sup>14)</sup> 다양한 특성을 가진 1세기 유대교가 다음의 공통 사항에 기초했다고 주장한다: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했고, (2) 이스라엘이 구원의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3)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택을 지탱하겠다는

13) N.T. Wright가 의존하고 James Dunn으로부터 20세기의 역작으로 평가받은 책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422, 515. 하지만 남플로리다대학교의 J. Neusner는 샌더스의 자료 활용 방식과 1세기 유대교에 내린 획일적인 정의를 비판한다.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 B.C.E.-66 C.E.: A Review of Recent Works by E.P. Sanders”, *BBR* 6(1996), 169. AD 70년 8월 29일에 성전이 파괴된 후, 야브네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요한안 벤 자카이의 지도로 미쉬나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AD 200년경 6권으로 미쉬나가 완성되었다. ‘반복하다’는 의미의 아랍어 ‘샤나’에서 온 ‘미쉬나’는 율법을 반복하여 랍비의 전승을 밝힌 책이다. 미쉬나를 편집한 사람을 ‘탄나임’이라 부른다. 나중에 미쉬나에 빠진 내용을 토세프타에서 보충했다. 토세프타는 ‘더한 것’이라는 의미의 ‘야사프’에서 온 말이다. ‘말하다’를 뜻하는 ‘아마르’에서 온 표현인 ‘아모림’이 편집한 탈무드는 미쉬나를 해석한 문서다.

14) 던은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inelegant) 것으로 평가하면서, 2성전 시대의 여러 유대 분파들이 각각 율법과 율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J.D.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3); 136.

약속을 담고, (4)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순종해야 했고, (5) 하나님은 순종에는 상(reward)을 불순종에는 벌을 주시고, (6)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임하는 벌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은 속죄(atonement)의 제사와 희생이라는 수단을 제공하고, (7) 속죄는 언약 관계를 지속·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8) 순종과 자비에 의해서 언약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종국에 구원을 얻게 되며, 오직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경우에만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샌더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의 위치는 언약 관계로 확립 및 규명되고, 언약은 그 안에 머물도록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므로 불순종하면 언약/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참고 시초 칭의와 최종 칭의를 구분하는 N.T. Wright의 주장은 열매가 부족한 한국 기독교를 반성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줌). 샌더스에게 칭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전 상태와 미래에 영화롭게 될 상태 사이의 중간 단계다. 샌더스는 ‘율법의 행위’(갈 2:16 등)를 할례, 안식법, 음식법이라는 유대인의 ‘경계 표지들’(boundary markers)이라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는데(참고. 4Q398 frag.),<sup>15)</sup> 이것은 던과 라이트의 해석과 일치한다. 슈바이처는 바울 신학의 중심에 법정적 개념인 이신칭의가 아니라 참여적 개념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는데, 샌더스도 이신칭의는 독립적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교리에서 도출되어 전개한 것이라고 본다.<sup>16)</sup>

샌더스는 바울이 율법종교가 아니었던 유대교를 왜 비판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는 그 이유를 유대교가 율법을

15) E.P. Sander, *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 (Minneapolis: Fortress, 1983), 207. Contra 율법의 행위를 율법주의나 유대인의 정체성 대신에 모세 율법 전체로 이해하는 T.R. Schreiner, *Galat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161; M.C. de Boer, *Galatians*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JK, 2011), 148. 그리고 분파주의적 성격의 콤란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갈라디아교회는 다르므로, 콤란 문헌과 갈라디아서를 병행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6)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438.

올바른 방향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17)</sup> 샌더스는 유대교에서 의는 하나님께 택하신 이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용어’이지만, 바울에게 있어 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입회하는 용어’(transfer term)라고 본다. 따라서 샌더스는 바울이 배타적인 기독교적 구원론을 제시함으로써 유대문헌에서 발견되는 종교 패턴과 전혀 다른 것을 제시했다고 본다. 즉 샌더스에 의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 준수를 비판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만한 사항은 역사비평가처럼 샌더스는 복음서의 사도권적 저작성을 부정하고, 역사적 예수님과 선포된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보며, 사도행전의 바울에 대한 언급의 역사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샌더스는 로마서 1:3-4의 양자기독론과 빌립보서 2:5-11의 선재기독론 사이의 불일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하나의 통일된 교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8)</sup> 결국 역사비평에 충실한 샌더스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여, 바울 해석에도 오류를 보인 것이다.

17)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543, 549-50.

18) 샌더스는 롬 8:14-17의 소위 ‘양자기독론’ 해석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한 바 있다. E.P. Sanders, *The Historical Figure of Jesus* (London: Penguin, 1993), 3-8, 63, 244; *Paul,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95-96. 샌더스는 롬 1-2장에는 내적 불일치가 존재하며, 롬 2장의 율법과 다른 부분의 율법에도 부조화가 나타난다고 본다.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23.

## 2.2. James D.G. Dunn(b. 1939)<sup>19)</sup>

던은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대에서 공부한 후(BD, MA), 캠브리지대에서 Ph.D와 D.D를 취득하였으며, 더럼대 교수로 은퇴한 후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샌더스의 이론이 NPP의 촉매제가 되었다면 던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대중화시켰다. 그는 2002년에 영국인으로서 4번째 SNTS의 회장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자이면서 NPP의 가장 치밀한 이론가인 던은 1982년에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말을 고안하고, 바울 서신의 ‘율법의 행위들’(ἔργα νόμου; 롬 3:20, 28; 갈 2:16[x3]; 3:2, 5, 10)을 유대인의 정체성 표지들(badges of identity)인 (십자가 사건으로 폐지된) 할례와 음식법 (그리고 안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성도와 하나가 되는데 장애요소가 되었기에 바울이 비판했다고 주장한다.<sup>20)</sup> 환언하면, 던은

19) 던의 NPP관련 저서로는 라이트에게 헌정한 *The New Perspective on Paul* (Grand Rapids: Eerdmans, 2008), 9; *Romans 1-8. 9-16* (WBC; Dallas: Word Books, 1988[한역: 솔로몬출판사, 2013]), lxix; 『바울에 관한 새 관점』(과주: 에클레시아북스, 2012), 21;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35; 『바울신학』.

20) 던, 『바울신학』, 475, 493, 506.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은 이한수, “새 관점의 칭의 해석,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비판적 평가와 새로운 대안”, 9(2010, 2), 『신약연구』 259; 하이델베르그대학의 R. Jewett, *Rom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266; 가이 워터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기원, 역사, 비판』, 261; 맨하튼 소재 나약신학회의 김동수, 『로마서 주석』(대전: 엘도론, 2013), 203. 던의 제자인 최홍식도 율법의 행위를 좁게 이해한 것에 반대한다. 최홍식, “바울 서신에 나타난 ἔργα νόμου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반제에 대한 새 관점: 갈라디아서 2: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2(2005, 4), 814, 850. 하지만 최홍식은 갈 2:16을 유대교의 행위 율법주의와 기독교의 이신칭의 사이의 대조로 보지 않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언약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 기독교인이 견지한 유대민족 중심의 언약주의와 그리스도 중심의 보편주의 복음 사이의 대조로 본다. 칼빈도 롬 3:20 주석에서 자기 시대에도 율법을 제의적 규정으로 제한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언급한다. 그런데 지금도 롬 3:22 등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믿음’(목적격적 속격)인지, 아니면 NPP가 선호하는 주격적 속격 ‘그리스도의 신실함’인지 논란이 된다. 참고. 전자를 선호하는 최갑중, “Agai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김형근의 ‘Faith of Christ’와 ‘Faith in Christ’에 대한 답변”, 『신약연구』 12(2013, 2), 331,

‘율법의 행위들’은 언약적 행위들로서, 사람이 언약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반복적 행위들이라고 본다. 따라서 던은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국수주의를 비판함으로써 보편주의로 확장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던은 1세기 유대교의 율법관과 구원관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해한다.

던은 샌더스와 레이제넨이 율법의 사회적 맥락을 철저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던은 이신칭의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2:11-14에 묘사된 ‘안디옥 사건’ 이후에 즉 다메섹 사건 10여년 후에 이방인 선교 차원에서 확립한 논쟁적 교리라고 본다. 샌더스에 동의하면서 던은 바울이 칭의를 행위보다 더 강조하기에 언약적 율법주의를 무시한다고 보았다(참고.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이었던 루터는 죄, 회심, 칭의에 민감했음). 던은 로마서 1:16-17의 ‘하나님의 의’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취하신 것으로 이해하며, 어거스틴 수도회 출신으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루터가 로마서를 해석할 때 바울도 동일한 고민을 한 것처럼 오해했다고 주장한다.<sup>21)</sup> 환언하면, 루터는 바울이 죄의식 때문에 고통에 빠졌다고 잘못 가정하여, 바울도 루터 자신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근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했고, 바울 당시의 유대교를 사람에게 고통과 근심을 가중시킨 율법종교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던은 죄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회개의 필요성도 약화시킨다.<sup>22)</sup> 던은 샌더스와 라이트보다 언약, 은혜, 선택을 더 강조하다보니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킨 면이 있다.<sup>23)</sup> 던에게 칭의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적 용어다. 던은 칭의를 하나님이 단 번에 이루신 행동이 아니라, 인정하시고 보존하시고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다.<sup>24)</sup> 던의 이 입장은 칭의를 사람이 언약 안으로 가입하는 ‘이

21) 던, 『바울신학』, 66, 468. 던에게 있어 바울은 유대교와 결별하지 않았다.

22) 참고. 김홍만, “바울의 새 관점의 루터에 대한 비판”, 『성경과 신학』 55(2010), 206-07.

23) 참고. 김철홍, “바울 신학의 새 관점: 바울 복음의 기원”, 『신약연구』 12(2013, 4), 843.

24) Dunn, *Romans* 1-8, 97.

동'(transfer) 용어로 본 샌더스와 차이가 있다. 던에게 칭의는 최후 심판까지 확대되는데, 칭의에서 믿음은 사람이 언약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순종의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sup>25)</sup>

던은 샌더스보다 바울 사상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더 강조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역사비평에 충실한 샌더스처럼 던도 성경의 영감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구축하는 안전한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두 자료가설(Q와 마가복음)에 근거하여 볼 때, 익명의 복음서 기자들(공동체)의 신학이 복음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던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정통 교리를 부정하면서, 바울 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던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목회서신의 바울 저작을 부정한다.<sup>26)</sup>

### 2.3. Nicholas Thomas Wright(b. 1948)<sup>27)</sup>

라이트는 1981년에 옥스퍼드대 위클리프홀에서 ‘로마서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을 연구하여 D.D를 취득했다. 1978년 30세에 공식적인 첫 번째 학회 발표인 ‘Manson 기념강좌’에서 자신이 NPP라는 말을 고안했다고 주장하는데, 던도 그 강좌에 참석했다. 라이트는 캐나다 맥길대(1981-86)와 옥스퍼드

25) 이 점을 조병수,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란 무엇인가?”, 18-19가 잘 요약함.

26) 던, 『바울신학』, 13, 292; contra W.C. Vergeer, “1 Timoteus” in W. Vosloo & F.J. van Rensburg (eds), *Die Bybellennium: Eenvolumekommentaar* (Vereeniging: CUM, 1999), 1628.

27) 라이트는 NPP관련 결정판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1650페이지)을 2009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탈고하기 위해서 더럽의 주교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Edinburgh: T&T Clark, 1998), 237, 242;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과주: 에클레시아북스, 2011);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부, II부』(서울: IVP, 2010);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샌더스와 던이 하지 못한 바울의 내러티브 해석을 라이트 자신이 발전시켰다고 자부하는 책 『톰 라이트의 바울』, 40.

대(1986-93)에서 가르쳤고, Lichfield성당의 책임장(1994-99), 2000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신학자로 임명 받았으며, 2003-2010년에 더럼의 주교를 역임했고 세인트 앤드류스대학교의 St. Mary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성경의 구속사를 내러티브로 해석하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을 믿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자인데, 세대주의의 문자적 휴거는 반대한다. 그는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 당시에 임박했다고 본 슈바이처에 반대하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인정한다.<sup>28)</sup> 라이트는 Richard Hooker (1554-1600)를 ‘가장 위대한 성공회 신학자’로 존경하는데, 후커는 이신칭의를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가톨릭교도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보았다.<sup>29)</sup> 후커의 사상은 라이트의 에큐메니칼 입장에 스며들었다고 평가된다.<sup>30)</sup> 그는 ‘저자의 죽음’을 외치는 포스터모던 해석을 반대한다.<sup>31)</sup> 라이트는 여러 개의 명예 박사학위와 학술상을 수여하여 학문적 명성이 자자하며 달변가인데, NPP 주창자들 가운데 복음주의권으로부터 가장 큰 호감을 얻고 있다. 라이트의 구속사, 언약, 십자가, 부활, 종말론적으로 도래한 새 세상에 대해 구체적으

28)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800, 846;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서울: IVP, 2009), 304-09. 송실대 권연경은 갈라디아서의 칭의론이 구원론이라는 면에서 OPP에 동의하지만, ‘율법의 행위들’은 교회론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 유대인의 신분의 표지로 이해하기에 NPP를 지지한다. 하지만 그는 갈라디아서에 미래 종말론만 있고(5:5의 ‘의의 소망’) 실현된 종말론은 없다고 본다. 권연경,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3), 114-15; contra 갈라디아서의 현재적 칭의(칭의를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함)가 미래적 칭의(재림시의 객관적인 최종 심판)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만든다고 보는 M. Silva, *Explorations in Exegetical Method: Galatians as a Test Case*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82.

29) 라이트,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과주: 에클레시아북스, 2011), 266. 영어 책명은 What St Paul Really said?[1997].

30) 참고. 김홍만, “바울의 새 관점의 루터에 대한 비판”, 214-15. 에큐메니칼 입장을 견지한 톰 라이트는 개혁교회와도 대화를 시도 중인데, 2014년 10월에 캄펜신학대학(해방과)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http://oud.tukampen.nl/Newsarticles/Dutch\\_theology\\_is\\_rigorous\\_says\\_N\\_T\\_Wright.aspx?objectname=NewsShow&objectId=157](http://oud.tukampen.nl/Newsarticles/Dutch_theology_is_rigorous_says_N_T_Wright.aspx?objectname=NewsShow&objectId=157)(2015년 5월 8일 접속).

31)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107, 681, 763.



로 해석한 것은 기여로 평가받는다.

라이트는 삼마이학과 출신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라기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세상을 이루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사건이라고 본다.<sup>32)</sup> 라이트는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은혜를 유대교가 국수적으로 제한한 것을 비판했다고 본다. 1세기 유대교가 펠라기우스적인 자력구원 종교가 아니었다고 간주하는<sup>33)</sup> 라이트는 ‘복음’이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 소식이 아니라(롬 1:16; 고전 15:1-3), 왕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를 이기셨고, 새 시대를 도래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로서 경배 받으셔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다.<sup>34)</sup> 라이트에게 ‘칭의’는 언약적 용어이자, 법정적 용어이자, 교회론적 용어인데, 칭의가 다양한 차원을 가지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의로운 언약 백성인가를 밝히는 선언이기 때문이다.<sup>35)</sup> 라이트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구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언하는 복음에 대한 고백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표현(선행)이다. 하지만 라이트가 정의하는 복음, 칭의, 믿음은 편협하거나 적용 차원이다.<sup>36)</sup>

32) 라이트,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55. 하지만 구약의 이신칭의가 신구약 중간기의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이행칭의로 왜곡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33) 라이트,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51. 이런 전제는 라이트가 샌더스를 의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지적하는 휴스턴 소재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의 J.M. Hamilton Jr., “N.T. Wright and Saul’s Moral Bootstraps: Newer Light on ‘the New Perspective’”, *Trinity Journal* 25(2004), 155를 참고하라.

34) 라이트,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67, 80.

35)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1부』, 88, 92;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124-25. 따라서 라이트의 법정적 칭의 개념(즉 누가 언약 안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이미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샌더스의 이동 용어와 다르다.

36) 참고로 라이트는 (전통적 개념인) 칭의가 믿음을 통하여(수단, 방법) 일어나지 않고, 믿음 위에 일어난다고 본다. 참고. Smith, “Justification i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111; 이은선,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의 이신칭의 이해에 대한 비판- 톰 라이트와 존 칼빈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8(2010), 205-06; 최갑중, “바울에 대한 새 관점 무

라이트는 로마서의 주제를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교회론적으로) 성취하시는가라고 본다.<sup>37)</sup> 하지만 구약에서 히브리어 ‘차디크’(의)와 ‘베리트’(언약)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라이트는 칭의(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펼치시는 화해 사역의 전체 그림’이 아니라, ‘사람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상태’ 혹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해한다.<sup>38)</sup> 유사한 맥락에서 라이트는 갈라디아서의 의를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가?”라는 개인 구원론적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대신 “(이방인이 유대인의 신분 표지인 율법의 행위 없이) 어떻게 언약 가족 안으로 개종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언약 멤버십이라는 공동체 방식으로 이해한다.<sup>39)</sup> 따라서 그는 칭의를 설명할 때 ‘구원’보다는 ‘교회’를 강조한다. 따라서 던처럼 라이트도 ‘율법’을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지라고 이해한다.<sup>40)</sup>

무엇보다 라이트는 의의 전가를 반대하고, Johannes Vlak과 Thomas Manton 처럼 시초 칭의와 최종 칭의(final justification)를 구분하는데,<sup>41)</sup> 후자는 신자의

엇이 문제인가?” 『한국개혁신학』 28(2010), 77.

37) OPP의 비판을 의식하여, 개인 구원을 도외시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269.

38) 라이트,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112;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 301. 라이트는 ‘imputation’(전가)보다 ‘incorporation’(연합)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한편 2010년 ETS에서 라이트는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실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라이트는 상(reward)과 법정적 판결(legal verdict)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달라스신학교 성경주해 교수인 J.E. Allman, “Gaining Perspective o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Bibliotheca Sacra* 170(2013), 61.

39) 라이트,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120;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 354, 364; *The Climax of the Covenant*, 252.

40) 라이트,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부』, 257.

41) “매티(1620-1677)은 이중 칭의를 인정하는데, 하나는 선언적 칭의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롬 2:13; 3:20, 30). 그는 고린도후서 5:21이 의의 전가를 말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의(혹은 그리스도인의 언약 멤버십)를 가리키며 사람에게 전가해 주신 의는 아니라고 본다. 라이트에게 ‘의’는 구약(예. 창 15:6; 시 24:4-5; 참고. 빌 3:9)이 아니라, 포로 후기에 발생한 전문 용어이다.<sup>42)</sup>

라이트는 취리히대학교의 O.H. Steck을 따라 ‘포로에서 귀환’이라는 틀로 복음서와 바울의 내러티브를 해석한다(예. 갈 3:13). 라이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예기치 못한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성취하셔서 절정으로 끌어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sup>43)</sup> 그는 OPP 지지자들(예. John Piper)이 너무 교회개혁 전통을 의지한다

---

예증적 칭의다. 선언적 칭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문제와 대응을 이루고, 예증적 칭의는 열매 없는 믿음의 문제와 대응을 이룬다. 행위에 따른 칭의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황주의의 형태로 퇴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받아들인 자들과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으나 그 유익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는 한 방법이다. 행위는 심판자가 정당한 평가를 행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자신의 판단을 증거, 사건의 진상이나 피고소인의 행위에 기초를 뒀야 하기 때문이다.” 조엘 비키 & 마크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906. “칭의에 관해 피스카토르(Piscator)와 쏘뮈르 학파의 견해를 분명하게 이어받은 첫 번째 인물은 주트폰(Zutphen)의 목사 요하네스 플락(1674-1690)이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칭의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칭의는 배타적인 죄 용서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근거를 갖기에 ‘죄인의 의’(justificatio impii)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칭의는 ‘경건한 사람의 의’(justificatio pii hominis)이며, 개인적인 복음의 의에 그 근거를 두는데, 이 의는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취하고, 선행과 관련하여 영생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회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663-664. 두 칭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한 맨턴은 정통파 청교도로 인정받았지만, 플락은 정통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42) 라이트,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444.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은 J.V. Fesko, “N.T. Wright on Imputation”, *Reformed Theological Review* 66(2007, 1), 6-9를 보라.

고 비판한다.

라이트는 역사비평을 분명하게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참고. 객관적인 순진한 실재론이 아닌 비평적 실재론). 라이트는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창안 혹은 개조되었다고 보기에, 복음서 사건들의 역사성에 의문을 보이고, (샌더스처럼) 복음서 기자들의 사도권 저작성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sup>44)</sup> 라이트는 앞으로 역사적 예수 탐구의 진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된 제 3차 탐구에 달려있다고 본다.<sup>45)</sup> 그런데 (NPP처럼) 주로 1세기 유대적 맥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는 제 3차 탐구가 라이마루스(d. 1768)가 시작한 1차 탐구와 케제만(1953)이 시작한 2차 탐구의 회의주의보다 더 건전한 것은 맞지만, 3차 탐구도 역사비평적인 회의주의 전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3차 탐구는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from Talmud and Mishnah*(1926)를 공저한 Hermann L. Strack<sup>46)</sup>-(유대인 출신 루터교 학자인) Paul Billerbeck 그리고 괴팅엔대 교수 Joachim

43)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231; 『톰 라이트, 바울의 복음을 말하다』, 133. 라이트처럼 James M. Scott도 포로 귀환 즉 종말론적 회복으로 이해한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김세윤, 『바울 신학과 새 관점』 (서울: 두란노, 2002), 230-32; 가이 워터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기원, 역사, 비판』, 250을 보라. 갈 3:10에 의하면 1세기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었다. 라이트는 롬 1-4장을 성경 구속사(*historia salutis*; 참고. 이것이 *ordo salutis*는 아님)의 패턴이 재현된다고 보는데, 그의 전반적인 구속사적 내러티브 해석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창조와 새 출애굽 주제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런 성경 신학적 주제들은 건전하지만, 작은 규모(*small scale*)의 개인 차원의 구원을 라이트처럼 등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인디애나주 소재 미드아메리카 개혁신학교 총장 C.P. Venema, “N.T. Wright on Romans 5:12-21 and Justification: A Case Study in Exegesis, Theological Method, and the New Perspective on Paul”, *Mid-American Journal of Theology* 16(2005), 37.

44) 라이트,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271.

45) 라이트,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156.

46) Strack(1848-1922)은 베를린대학교 구약과 셈어교수를 역임했는데, 독일의 탈무드와 랍비문헌 연구의 대표 학자다. 그는 독일에서 반(反)셈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을 변호했다.

Jeremias(d. 1979)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샌더스와 던처럼 라이트도 성경 이외의 유대 문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2성전 시기의 이런 문헌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변개하거나 왜곡한 경우가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유대 문헌의 정확한 연대가 모호할 뿐 아니라, AD 2세기 이후의 랍비 문헌을 1세기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용한다면 시대착오적 해석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유대 문헌과 신약 사이의 유사점이 발견되면, 신약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거나 표현과 사상을 빌려왔다라고 과도한 병행주의적(parallelomania)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대인의 사상에 있어서 AD 70년 사건과 AD 135년의 바 코크바 반란은 사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기에, 그 전후 유대 문헌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다. 라이트의 과도한 병행주의적 해석은 그의 반로마제국 이데올로기적 해석에도 나타난다. 2000년 맨체스터대학교의 ‘Manson기념 강좌’에서 라이트는 바울에 대한 ‘신선한 관점’(fresh Perspective)이라 명명하며 바울 서신을 로마제국의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와 비교하며 해석했다. 하지만 바울 서신과 제국 이데올로기 사이의 병행되는 단어(구원, 복음, 방문, 주, 평화 등)를 과도하게 연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sup>47)</sup>

또한 라이트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는 바울 저작으로, 골로새서는 거의 확실한 바울 저작으로, 에베소서는 다소 확실한 바울 저작으로 여기지만,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테전서와 디도서의 바울 저작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회의적이다.<sup>48)</sup> 사도행전의

47) 참고.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508-09;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 1039. 바울 서신의 배경이 되는 로마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라이트가 반로마제국적 해석을 시도할 때, 그는 유대적 배경도 염두에 두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시도하는 이들(R. Horsley, W. Carter, E.S. Fiorenza 등)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하면서, 소위 ‘제2 바울 서신’을 바울 저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달라스 소재 크리스웰신학교의 D. Burk, “Is Paul’s Gospel Counterimperial?: Evaluating the Prospects of the ‘Fresh Perspective’ for Evangelical Theology”, *JETS* 51(2008, 2), 318-19, 327.

바울 묘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라이트는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다소 확실한 바울 저작으로 보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한다.<sup>49)</sup> 따라서 그는 바울 신학 구축을 위해서 사도행전의 바울 묘사를 중요하게 의지하지 않는다. 라이트는 바울 서신의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밝혀도 문체나 사상을 따져서 결정하려는 비평적 실재론 혹은 역사비평적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결국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 3. NPP의 기여 및 문제점

#### 3.1. 기여

폴러신학교의 D.G. Reid의 말처럼 NPP는 ‘신약 신학의 혁명’이며, 바울을 신선하게(fresh) 이해하도록 하는가? C.L. Porter와 R. Jewett의 표현대로 NPP는 로마서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인가? 교회개혁의 전통이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에 종속되어야 함을 (라이트가) 상기시킨 점, 1세기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대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점(특히 이신칭의를 수용한 소수의 유대인이 존재한 사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무시간적 교리와 주해와 적용이 아니라 바울 당시의 교회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해하도록 자극을 준 점, 그리고 2성전 시기 유대문헌(사해사본, 벤 시락, 1에녹, 희년서, 12족장의 유언, 솔로몬의 송가, 4에스라, 외경, 위경 등)의

48)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117-19: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352; contra J.R. Beeke (ed.), *The Reformation Heritage KJV Study Bible*, 1751, 1761, 1769.

49)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122. NPP에 대한 방대한 자료의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라: <http://www.thepaulpage.com/the-new-perspective-on-paul-a-bibliographical-essay/>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취시킨 점, 칭의를 (아브라함) 언약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 노력한 점, 포로 귀환이라는 구속사적 주제로 바울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칭의와 율리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은 다수의 학자들로부터 NPP의 기여로 인정을 받는다.<sup>50)</sup> 그리고 2성전 시대의 방대한 유대문헌을 읽어내는 것은 NPP 주창자들처럼 탁월한 언어적, 학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문헌들은 NPP처럼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하나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1세기 팔레스틴 유대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아야 한다고 교훈한다.

### 3.2. OPP가 본 NPP의 문제점

NPP 주창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견지하고 있는 역사비평적 전제와 해석 방법이 근본 문제이다. 그리고 마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명제가 오류라도 되듯이, 2성전 시대 유대 문헌의 가치를 정경 수준으로 과대평가한 점은 성경의 충족성에 위배된다. 그리고 라이트가 샌더스에게 “한 절 한 절 철저히 주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한 비평은 NPP 지지자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개혁의 유산인 문법-역사적-성경신학적 주석에 NPP 지지자들이 충실하지 않다면,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단순 ‘비교종교학’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NPP처럼 바울이 1세기 유대교를 행위-의를 추구하는 율법 종교로 오해했다면 성경의 영감성은 허물어질 것이다. 역으로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유대교를 율법 종교로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루터와 교회 개혁가들도 바울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NPP 그룹 안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50) 참고. R.S. Smith, “A Critique of the New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8(1999, 2), 98-100; 조경철, “칭의론, 바울신학의 핵심인가? 주변 요소에 불과한가?”, 『신학과 세계』 70(2011, 3), 114-19.

왜냐하면 제롬과 에라스무스는 바울 서신의 ‘율법의 행위’(혹은 ‘행위’, 롬 4:2, 6; 9:12, 32; 11:6)를 ‘할례와 안식일법 및 기타 제의적 법’이라고 좁게 보았다.<sup>51)</sup> 루터와 필립 멜랑히톤은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논박했기에, 교회개혁자들이 NPP의 주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sup>52)</sup> NPP는 루터를 교회개혁자들 중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수호자로 여겨서 이신칭의를 마치 ‘루터교 해석’처럼 간주한다. 그런데 루터의 로마서 강해는 20세기가 되어서야 출판되었지만, 멜랑히톤은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서 주석을 5권으로 출판했다. 멜랑히톤은 그 당시 르네상스의 해석 방식을 동원했기에, NPP가 주장하듯이 교회개혁자들이 ‘eisgesis’했다고 보기 어렵다. 개혁신학 안에서도 오래 전부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상에 반기를 들고, 언약과 성화의 중심성을 강조했다. 칭의 논의에서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의의 발전을 강조한 이들이 NPP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유용하다.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사람의 무능과 죄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NPP가 약화시켜서 낙관적 인간관을 견지하고 말았다. 유러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한 유대인을 비판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사건은 유대인의 정체성 표지를 제거하거나, 교회 일치를 촉진하는 차원으로 제한될 수 없다.

NPP는 2성전 시기 유대문헌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충족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다.<sup>53)</sup> 더욱이 그들이 유대문헌을 인용할

51) 참고. 미국 가톨릭대학교의 F.J. Matera, *Galatians* (Sacra Pagina;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7), 93.

52) 참고. 아버딘대학교에서 7년 가르친 후 2007년 10월부터 캠브리지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캠브리지의 에덴침례교회의 장로인 Simon J. Gathercole, “What did Paul Really mean?”, *Christianity Today* 81(2007, 8), 22-28. 게더콜은 더럼대학교에서 던의 지도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7-13년에는 JSNT의 편집인이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루터교신학교의 T.J. Wengert, “The ‘New’ Perspectives on Paul at the 2012 Luther Congress in Helsinki”, *Lutheran Quarterly* 27(2013), 89-91.



때, 선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환원주의에 빠졌다. NPP는 ‘바울 탐구’보다는 ‘1세기 유대교 탐구’라 불리기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설령 NPP가 ‘바울 탐구’라 불릴 수 있다고 해도, 바울 서신들 중 일부의 바울 저작을 부정하기에 부분적 연구에 그치고 만다. 그리고 바울이, 예를 들어, 인간의 보편적 죄성을 깨달았을 때, 2성전 시기 유대 문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전되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sup>54)</sup>

NPP는 이신칭의를 이방인 선교 맥락에서 바울이 고안해 낸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선교사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산물이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죄 사함이라는 이신칭의를 이미 깨닫고 선교에 임했다(롬 5:1, 9; 갈 1:11-12).<sup>55)</sup> NPP주창자와 달리,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율법에 헌신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구원 밖에 있었다고 단언한다.<sup>56)</sup> NPP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유대인 개인의 구원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했다. NPP의 주장과 달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속죄 제사가 유대인의 구원과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히 10:1).<sup>57)</sup>

NPP는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는데서 그치지 않고 회심했던 사도 바울의 논의 즉 그의 사고 구조를 문법-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정직하게 인정하지

53) T. Stoychev, “Is There a New Perspective on St. Paul’s Theology?”, *Journal of European Baptist Studies* 11(2011, 3), 49.

54) 참고. 김병훈, “율법주의, 언약적 율법주의, 은혜언약: ‘바울의 새 관점’의 신학적 소개 (所在)?” 『한국개혁신학』 28(2010), 162.

55) Smith, “A Critique of the New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103; 김철홍, “바울 신학의 새 관점: 바울 복음의 기원”, 852.

56) 이한수, “새 관점의 칭의 해석, 어떻게 볼 것인가?”, 275, 280. 하지만 NPP주창자들과 유사하게 이한수는 율법의 행위를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여긴 1세기 유대교를 ‘강성 율법주의’(hard legalism)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강성’의 정도가 모호하다.

57) 변종길, “새 관점 학파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23, 25.

않는다.<sup>58)</sup>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성취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의를 이루셨다고 로마서 3:19-20에서 밝힌다. 그런데 NPP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한 율법 성취의 능력을 교회론으로 격하시킨다. 과연 최종 칭의를 순종으로 얻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신분 표지(NPP의 ‘율법의 행위들’)를 따르지 않은 채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칭의론의 핵심인가? 아니다. 그것은 칭의의 적용이다. 칭의의 핵심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칭의의 핵심이라 본다면, 그 주장은 죄의 파괴력을 간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을 유대인의 신분의 표지로 제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 창조의 은혜를 배제한 인간의 모든 율법 준수 노력이라고 설명한다.<sup>59)</sup> 또한 바울은 신약 저자 중 자신만 사용한 표현인 ‘율법의 행위’를 유대인의 신분 표지(참고 4QMMT)로 제한하지 않는다.<sup>60)</sup>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 구원의 은덕을 기억하며 지켜야 했던 율법의 기능과, 1세기 유대교의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된 율법의 기능은 다르다.<sup>61)</sup>

58) NPP가 성경의 영감을 파괴했던 ‘옛(역사비평) 이데올로기의 부흥’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샌더스와 레이제넨은 역사비평가들처럼 바울 서신안의 사상의 불일치와 비일관성을 주장한다. 참고. NPP의 출현 배경에 역사비평과 20세기 후반의 신해석학(new hermeneutics; 본문과 해석가의 대화를 통한 주관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를 발견하려는 E. Fuchs와 G. Ebeling)의 실존주의가 있다고 보는(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는 마스터신학교 신약 교수인 Farnell, “The New Perspective on Paul: Its Basic Tenets, History, and Presuppositions”, 197-99, 201.

59) 참고. 김세윤, 『바울 신학과 새 관점』, 107; 김철홍, “바울 신학의 새 관점: 바울 복음의 기원”, 843.

60) 한천설, “로마서 3:21-4:25에 나타난 바울의 칭의론과 그 적용: 새 관점 학파의 사회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4(2012), 293.

61)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된 것 즉 이행칭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발생

샌더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IQS(쿰란공동체 규율)에 의하면,<sup>62)</sup>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안으로 ‘getting in’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 의지와 노력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언급한다(참고. 중세 후기의 유명론).<sup>63)</sup> 이런 공로 구원 혹은 신인협력적 율법주의(synergistic nomism)는 다른 많은 유대 문헌들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예. AD 100년경의 2바룩, AD 50년경의 솔로몬의 시편, 요세푸스, 토빗, 유딧, 마카비서). 따라서 자신의 결론을 연역적으로 세워 놓고 역사적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샌더스와 NPP주창자들은 유대 자료들을 환원주의 방식으로 활용했다.<sup>64)</sup> IQS와 관련하여 더 언급해 보면, ‘빛의 자녀’인 쿰란공동체를 떠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기에, 쿰란공동체는 외부 그룹과의 구분을 위한 경계선 강화 차원에서 구원론을 이해한다. 이것은 유대인의 진영 논리가 구원론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그리고 샌더스는 ‘팔레스틴 유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팔레스틴과 디아스포라의 유대교 패권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지 의문인데, 헬레니즘이 로마제국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다.<sup>65)</sup>

존 파이퍼의 『칭의 논쟁』(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에 대한 응전인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에서 라이트가 성경의 많은 언약들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을 특별히 강조하는 점, 쿰란문헌 중에서 4QMMT(제사장 서신)를

---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모세 당시에 이행칭의는 불가능함을 미리 경고하셨다(레 18:5; 신 27:26; 샬 2:7)는 주장은 변종길, “새 관점 학파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22를 참고하라.

62)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323-27.

63) 리폼드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D.C. Timmer, “Variegated Nomism Indeed: Multiphase Eschatology and Soteriology in the Qumranite Community Rule(IQS) and the New Perspective on Paul”, *JETS* 52(2009, 2), 353.

64) Smith, “A Critique of the New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101.

65) 참고. 마르틴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2』(서울: 나남출판사, 2012), 429-30. 1세기에 유대교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디아스포라 유대교와 팔레스틴 유대교는 달랐다는 견해는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102, 160-61, 231, 하지만 라이트는 팔레스틴이건 이방 지역이건, 유대인들 모두가 포로 가운데 있었다고 인정한다.

의존하는 점,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상태를 ‘의’라고 협소하게 정의하는 점, 바울 서신의 ‘율법’을 유대인의 신분 표지로 협소하게 정의하는 점, 그리고 의의 전가(참고. 『기독교강요』 3.11.2) 없이 속죄가 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점은 문제점이다.<sup>66)</sup> 바울에게 ‘믿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과 긍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의 전가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서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과 성도가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그 구원과 의를 고백한 결과인데, NPP의 미래의 최종 칭의는 이 중요한 개념을 희석시키고 반대한다.<sup>67)</sup>

그런데 NPP가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 ‘최종 칭의’를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문제이지만, 이 용어 자체는 고려할만하다. 구원의 서정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택자를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다음 서정인 칭의와 영화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구도를 따라 진행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고. 롬 8:30의 진행적인 의미의 진입적 아오리스트 동사들 *ἐδικαίωσεν, ἐδόξασεν*). 진행형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를 논할 때 중요한 점은, ‘이미’(과거-현재적인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가 ‘아직 아니’(미래적인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를 보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고. 딤후 4:18; 벰전 1:2). 이 보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성화 중인 성도는 미래 칭의, 미래 성화, 미래 영화를 행복한 긴장 가운데 선취(先取)할 수

66) 참고.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209; 우병훈, “『롬 라이트, 칭의를 말한다』 서평”, 『갱신과 부흥』 9(2011), 118-32.

67) Minneapolis 소재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John Piper, OPC 목사이자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들인 D. Van Druen(b. 1971)과 R.S. Clark(b. 1961)를 참고하면서 (NPP의 개념인) ‘의의 선언’이 아니라 ‘의의 전가’(롬 4:5; 5:17, 19; 10:4 등)를 변호하는 견해를 위해서 Venema, “N.T. Wright on Romans 5:12-21 and Justification”, 64, 72; Byunghoon Woo, *The Pactum Salutis in the Theologies of Witsius, Owen, Dickson, Goodwin, and Cocceius* (Ph.D. dis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15), 59를 보라.

있다.<sup>68)</sup> 성령은 성도의 현재적 의로움(참고. 롬 3:28의 현재 동사)과 거룩함과 영광돌림을 가속화하시고 불안한 긴장을 제거하신다.<sup>69)</sup>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상호 분리되지 않고 일정 부분 중복된다. 이러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신약의 전형적인 종말론적 틀에 근거한 칭의 이해는 성도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적인 법정적 차원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너머의 칭의를 입은 성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도 인정하는 것이다(참고. 살전 1:3). 결국 이런 역동적인 이해는 성도로 하여금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며, 구원의 서정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화되도록 자극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은혜로 주어진 성령과 믿음으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칭의, 성화, 영화를 완성시킬 것이다.<sup>70)</sup>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고 이미 선언을 받은 성도는 장차 최후 심판 때 다시 의롭다고

68) 필자의 입장과 신입협력적인 과정으로서의 가톨릭의 칭의 개념은 다르다. 가톨릭은 하나님이 은혜로 의를 사람에게 주입(*infusion*)할 때, (가톨릭은 낙관적인 인간관에 기초하여) 사람의 역할과 반응을 중요시하며, 심판의 날에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를 보존해야 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가톨릭에게 칭의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불의한 상태에서 정의로운 상태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신인협력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이해에는 ‘불안한 긴장’이 상존하는데, NPP의 주장과 유사하다. 참고. 손기웅, “바울의 새 관점과 이신칭의 교리: 칭의의 기독교론, 인간론, 종말론적 측면에 관하여”, 『성경과 신학』 55(2010), 50, 79. 참고로 D.J. Moo도 롬 5:19, 8:33, 갈 3:11, 24에서 칭의의 미래적 측면을 인정한다. 참고. A.J. Köstenberger & R.W. Yarbrough (eds), *Understanding the Times New Testament Studies: Essays in Honor of D. A. Carson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Wheaton: Crossway, 2011), 190.

69) Silva, *Explorations in Exegetical Method: Galatians as a Test Case*, 174.

70) 참고. 손기웅, “바울의 새 관점과 이신칭의 교리: 칭의의 기독교론, 인간론, 종말론적 측면에 관하여”, 82. 개혁파의 단회적 칭의와 연속적 성화에 대한 정통 입장을 위해서는 김철홍, “바울 신학의 새 관점: 바울 복음의 기원”, 860을 보라. 계 20:12는 예수님의 재림 후 있을 백보좌 심판 시, 생명책에 녹명된 이들이 상급 심판을 받는 장면이다(참고. 계 3:5; 20:6). 따라서 생명책에 녹명된 이들이 최종 칭의를 상실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최종 칭의의 근거 구절로 제시한 롬 2:13; 3:20, 30을 바울이 미래적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니다.

선언을 받을 것이다. 환언하면, 미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참고. 롬 2)은 그리스도 사건과 의의 전가에 기초한다(롬 3:24; 5:9).<sup>71)</sup> 따라서 의의 전가는 ‘법정적 허구’일 뿐이라는 NPP의 주장은 오류다.

NPP는 사람의 행위에 구원 안에 머무는 것(최종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후 심판을 언급하는 유대 문헌들에 사람의 행위는 물론 하나님의 자비도 강조된다(시락 16:12, 14; 35:24-26). 즉 사람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sup>72)</sup> 물론 NPP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최종 칭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NPP는 최종 칭의의 근거를 사람의 순종에 더 둔다.

NPP는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하는데, 그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목회서신에도 1세기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볼 수 있다.<sup>73)</sup> NPP 주창자들이 목회서신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비평가들처럼 바울의 진정성이 결여된 서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국한시킨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미래종말론과 관련하여, 개인의 구원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는 라이트는 개인의 영혼이 육신을 벗고 천국가는 것 자체는 바울 서신의 주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계에 정의를 회복하시는데 기여하는 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sup>74)</sup>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최종 파루시아 때 세상의 갱신과 개인의 부활은 하나의 주요 관심사였다(고전 15:42-58; 살전 4:16-17; 딤후

71) 바울 연구로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서충원, “바울의 법정적인 칭의 개념: 종교 개혁적 관점과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27(2010), 391, 402.

72) 김경식, “최후 심판행위 사상으로 본 바울시학의 새 관점”, 『신약연구』 49(2010, 3), 19-20.

73) 참고. 송영목, “목회서신의 율법관: 바울의 새 관점과 비교하며”, 『교회와 문화』 28(2012), 95-126.

74)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269

4:17-18). 따라서 바울의 종말론과 구원론을 논할 때, 개인과 온 세상의 갱신 그리고 갱신의 현재와 미래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NPP의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많다. 합신대 조병수교수는 NPP를 ‘독일 신학(루터의 개인 구원과 불트만의 실존주의)에 대한 영국 신학의 도전’으로 평가하면서, NPP도 독일 신학(특히 역사비평)을 사용하기에 독일 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남침례신학교의 T.R. Schreiner(b. 1954)와<sup>75)</sup> 리폼드신학교의 신약 교수로서 듀크대에서 샌더스의 지도로 박사학위(2002)를 취득한 Guy P. Waters(일명 Dry Waters)는 NPP를 비판하며 OPP 입장을 견지한다.<sup>76)</sup> 그리고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J.V. Fesko, D. Van Drunen, 남침례신학교의 M.A. Seifrid,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의 J.M. Hamilton Jr., 풀러신학교의 D.A. Hagner, 하이델베르그대의 P. Stuhlmacher, WEST의 T. Holland, 캠브리지대의 S.J. Gathercole, 휘튼대의 D.J. Moo, 시카고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의 D.A. Carson, 무어신학교의 P.T. O’Brien, 샘포드대학교의 F.S. Thielman, 엘름홀스트대학교의 A.A. Das, 리폼드신학교의 J.L. Duncan, 마부르그대학교의 F. Avermarie, 낙스신학교의 R.L. Raymond(d. 2013), 고든-콘웰신학교의 M. Silva,

75) C.E.B. Cranfield, P. Stuhlmacher, F. Thielmann의 전통적인 해석을 참고하여 NPP의 ‘율법의 행위’ 해석을 비판하는 T.R. Schreine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1998), 172(한글판은 2012). 풀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칼빈주의에 충실한 침례교학자인 슈라이어는 NPP를 비평하는 논문을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IVP, 1993), *JSNT*, *BBR*, *NT*, *TJ*, *WTJ*, *JETS* 등에 기고했다.

76) (연약/구원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한 지나친 강조, 오직 은혜로 구원 받음을 약화시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가 사람에게 전가됨을 부정함이라는 측면에서) NPP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Norman Shepherd, R. Rushdoony, Douglas Wilson, James Jordan (그는 나중에 *Federal Vision*에서 탈퇴함) 등을 중심으로 했던 *Federal*(라틴어 *foedus* = Covenant) *Vision*(View)도 비판하는 가이 워터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기원, 역사, 비판』, 『칭의란 무엇인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OPC, RCUS, URCNA, PCA 등 몇몇 교단들이 *Federal Vision*(FV)을 (이단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참고. <http://cafe.daum.net/316church/7tFB/18?q=federal%20vision&re=1>(2015년 5월 4일 접속).

시드니의 R.S. Smith, 유대인 학자로서 남플로리다대학교의 J. Neusner 등 많은 이들도 NPP의 기여를 일부 인정하지만 깊게 비판한다.<sup>77)</sup> NPP의 기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OPP를 지지하는 한국 학자들도 많다(고신대 변종길, 백석대 최갑중, 풀러신학교 김세운, 합신대 이승구, 김병훈, 안양대 이은선, 장신대 김철홍, 국제신대 김홍만, 웨신대 김경식, 대신대 손기웅, 총신대 이한수, 한천설, 심창섭, 이상원, 서울신대 조갑진, 서충원, 감신대 조경철, 한국성서대 김현광, 고려신학교 현영훈 등).<sup>78)</sup>

## 나오면서

구원의 핵심 개념인 이신칭의를 바울 신학의 주변(peripheral) 주제인 바울이 고안한 교회론으로 강등시킨 NPP의 선구자들 중 하버드대의 유대인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적지 않고, 최근 NPP 주창자들은 옥스브리지 출신이 다수다. NPP 비평가들은 특히 샌더스가 교수했던 듀크대 출신과 개혁주의 신학교들(갈빈 전통의 남침례신학교 포함)에 많다.

77) D.J. Moo, *Galat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3), 159.

78) 이신칭의를 개인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와 관련된 구속사적 문제로 보는 총신대 이한수와 1세기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보는 백석대 홍인규에 대한 비평은 변종길, “새 관점 학파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20을 참고하라. 덧붙여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NPP비평은 『성경과 신학』 2010(55)을 참고하라. NPP를 반대 하면서 로마서를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 보는 T. Holland, *Romans: The Divine Marriage* (A Biblical Theological Commentary; Eugene: Pickwick, 2012), 102; 최갑중, 『로마서 듣기』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09), 80, 218. 라이트의 반(半) 펠라기우스적 경향과 성경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승구, 『톰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4), 52, 316을 보라. 신구약 학자들이 주석을 한 후 그 결과가 개혁주의 교리와 상충될 때, 혹 자신의 주석에 오류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점검이 선행되어야 성경학자들에 의한 교리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다.



지난 40년 동안 바울 신학 논의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해온 NPP주창자들 가운데 라이트보다 샌더스와 던의 경우 역사비평에 매우 충실하다. 결국 그들은 성경의 영감성과 권위와 통일성을 부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NPP의 오류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NPP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일치라고 본다. 하지만 교회가 유대인의 민족우월주의를 극복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이신칭의의 적용이다.<sup>79)</sup> 그리고 NPP가 시초 칭의와 최종 칭의를 구분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한다. 그리고 NPP는 1세기 유대교가 은혜 종교라고 보기에, 결국 유대인들이 구주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준수하다가 걸려 넘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눅 18:9, 12, 18), NPP는 1세기 유대교가 행위 율법종교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서신서의 바울 오해로 이어졌다. 구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언약적 율법주의를 가르치지만, 1세기 유대교는 행위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려고(getting in) 시도했던 신인협력적 율법종교(co-operative synergism 혹은 proto-semi-Pelagianism; R. Smith의 용어)였다. 그리고 NPP는 칭의를 ‘언약적 멤버십’으로 정의하지만, 그것은 칭의의 결과이다. 의미와 적용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NPP가 환원주의에 입각하여 2성전 시기 유대문헌을 활용하면서 1세기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획일화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처사다. 바울 서신을 출발점으로 하여 2성전 시기 유대 문헌을 평가해야 하지, 역은 성리될 수 없다. 지금도 NPP의 주창자들은 OPP의 비판에 직면할 때, 수사학적으로는 자신의 진술을 다소 변경하나, 핵심 주장은 그대로 견지한다.<sup>80)</sup>

79) J.R. Beeke (ed.), *The Reformation Heritage KJV Study Bible*, 1609, 1687, 1692; 한천설, “로마서 3:21-4:25에 나타난 바울의 칭의론과 그 적용”, 307; 비평적 실재론으로 신학, 역사, 석의, 적용을 혼합하는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101.

우리는 이신청의와 그것의 확장인 칼빈의 5대 교리를 OPP 입장 그대로 따라야 한다(엡 2:8).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논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것(getting in)과 머무는 것(staying in) 둘 다 포함한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faith)과 신실하게 사는 것(faithfulness) 모두 포함한다.<sup>81)</sup>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바울의 논점은 죄로 인한 남은 자의 감축 현상을 마감하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 남은 자가 확장되어가지, 최종 칭의에 이르는 자가 드물어 남은 자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82)</sup> 오늘날에도 올바른 기독교론과 칭의론을 확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열매를 통해서 중생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의 삶에 성화가 약화되어 지탄을 받는 교회의 현실에 대한 반성 때문에 NPP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이 있다. 이럴수록 성경에서 이탈한 교훈을 찾아내기보다는, 개혁 신조들이 분명하고 은혜롭게 천명하는 올바른 칭의와 칭의의 필수적인 열매인 성화를 가르쳐야 한다(롬 3:24, 26; 갈 5:16, 25; 엡 2:8-9).<sup>83)</sup>

80) 특히 제임스 던은 『바울에 관한 새 관점』에서 OPP의 비판을 의식하여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수사학적 립 서비스를 자주한다. 던이 ‘율법의 행위’의 범위를 약간 확장하려는 점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불순중한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한 평가는 Smith, “Justification i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24를 참고하라.

81) 참고. 고든 피,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서울: 좋은 씨앗, 2000), 114.

82) 라이트는 바울 서신에 점진적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증표가 없다고 보다. 오히려 바울은 강력한 메시아의 통치는 있되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력한 메시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왜 불가능한지 의문이다.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 827.

83) 다수의 한국 목회자들의 경우처럼, 남아공의 신약 학자들에게 최근까지 NPP는 큰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남아공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백인 엘리트 신학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로, 바울 서신의 주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이슈화하는데 관심이 점점증하고 있다. P. Naudé, “Can We still hear Paul on the Agora?: An Outsider Perspective on South African New Testament Scholarship”, *Neotestamentica* 39(2005, 2), 339-59. 아파르트헤이트를 지지했던 프레토리아대학교의 E.P. Groenewald같은 남아공의 개혁교회 신약학자들은 유대인(백인)과 이방인(흑인)의 하나됨이라는 NPP의 주장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NPP는 동유

성도에게 은혜의 복음인(갈 1:6-8) 하나님이 주신 의는 율법주의적인 자기 열심을 고취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감사의 열매를 필연적으로 맺게 한다. 영감된 성경의 통일성을 수용할 때에야 올바른 역사적 그리스도 (**historical Christ**)와 신앙의 예수님을 구축하고, 올바른 역사적 바울도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신학에서 전제가 중요하다. 개혁 교리가 성경 신학의 전제, 출발점 혹은 규범은 아니라할지라도 안전장치는 된다. NPP에 발목 잡힌 바울 신학 연구가 이제는 문법적, 역사적, 성경신학적 석의로 더 촉진될 때이다.

---

럼에서도 논의 중인데, 슬로바키아 수도 Bratislava 소재 Comenius대학교 Frantisek Abel 과 Igor Kiss교수는 복음주의 루터교신학과 소속이지만 NPP에 다소 호의적이다. O. Protrednik, *Justification according to Paul: Exeget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Bratislava: Comenius University Press, 2012), 23, 163.